

여당서도 “青 비서진 용퇴” 촉구

■ 국회 대통령 비서실 국감

“부동산정책 경솔한 언행 혼란 부추겨”

한나라선 노대통령 국민 사과 요구도

국회 운영위원회의 16일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청와대 책임론을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미리 배포한 질의자료를 통해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실패로 규정한 뒤 중구난방식 국정운영과 청와대 비서진의 경솔한 언행이 부동산시장의 혼란만 부추겼다고 질책했다.

이와 함께 일부 여당의원들은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부담만 안겨주고 있는 만큼 청와대 비서진의 전면개편을 요구하는 한편 박남춘 인사수석과 전해철 민정수석이 현법제판소장 공백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우리당 장경수 의원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했고 이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지금 집사면 낭패를 본다’는 흥보수석실의 글도 혼란과 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승용 의원은 “청와대가 부동산 시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조절하는 능력 자체가 부족했다”며 “이제는 입을 닫고 정책의 실천으로 말해야 할 때인 만큼 제 역할을 못한 청와대 국정혼란만 야기한 시끄러운 입 ‘청와대 브리핑’을 중지하고 신뢰회복을 위해 강남지역에 사는 비서관들은 집을 팔고 이사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성 의원은 “청와대 비서진과 참여정부 장관들 대부분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용단을 내리기보다는 대통령 뒤에 숨어 자리에 연연한다”고 비

관했고, 강성종 의원은 전효숙 과문과 관련, “청와대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이 이제라도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더 나아가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와 이병완 비서실장, 김병준 정책기획위원장, 김수현

사회정책비서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어설픈 철학으로 부동산대란을 일으킨 총책임자인 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세금폭탄 발언의 김병준 위원장, 강남 아파트를 소유한 이 비서실장, 8·31 대책 실무책임자인 김수현 비서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은 “청와대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 36명 중 17명이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벼슬세는 지역에 아파트 20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국민은행 아파트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241억원에 달했다”며 “대통령이 강남필패를 이야기할 때 참모들은 입으로만 강남필패 정책을 만드는 시늉을 했다”고 꼬집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청와대 이병완 비서실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관계직원들과 함께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주선·이만영씨 지역위원장 신청

“千·辛·鄭·柳 정계 떠나라”

김성호 전의원 “與 정계개편 논의 국민 사기극”

공석 상태인 민주당 광주·전남지역 지역위원장의 선임이 미뤄지거나 직무대행 제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6일 한화갑 민주당 대표는 중앙당 간부회의에서 “적임자가 없으면 지역위원장 자리를 계속 비어 둬도 된다”며 “정계개편 등으로 정치권의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무리하게 지역위원장 선임에 나서기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번 지역

위원장에 응모한 일부 인사들의 경우, 시대적 요구와 맞지 않는 지적이 있다”며 “공식 상태인 지역위원장 선임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갑 대표는 이날 오전 당사를 찾아온 박주선(광주 동구위원장) 응모 전 의원과 이만영 전 대표

비서실장을 면담한 이후 “박 전 의원은 지난해 내가 동구위원장 맡아달라고 할 때는 외면하더니 이제야 위원장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열린우리당 창당 멤버였던 김성호 전 의원은 16일 최근 여권에서 진행 중인 신당 창당 등 정계개편 논의를 ‘정략적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규정하고, 신당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9월 우리당을 탈당한 김 전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발송한 이메일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천정배 신기남 의원, 정동영 전 의장,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등 4명에 대해 “한국판 흥우병 4인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천.신.정.유 4인방”을 비롯한 정권

주도세력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정계를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현재의 위기를 초래한 책임의 최정점에 노 대통령과 친노친위세력이 있음을 주지의 사실이나 지난 4년간 당정의 요직을 두루 섭렵하며 지지자를 배신하고 국민을 속이는데 앞장섰던 당의 지도급 인사들 또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우리당을 대통령의 거수기 정당으로 전락시킨 ‘천.신.정’과 유시민 네 사립의 책임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정부, 北인권결의 찬성 배경과 의미

北 핵실험 후 ‘한국마저 왕따’ 우려한 듯

북 반발 예상… 남북관계 경색 불가피

당국 “포용정책 변함없다” 확대해석 경계

정부가 이번 유엔총회에 상정된 대북 인권결의안에 대해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지기로 입장

쪽에서 흘러나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는 왜 기권했나=유엔에 대북 인권결의안이 오른 것은 이번을 포함해 5차례다.

2003~2005년에 걸쳐 매년 4

월에 열린 제59~61차 유엔 인

권위와 작년 11월 유엔 총회에

이어 이번 유엔 총회를 말한다.

유엔 총회에 대북 인권결의안이 오른 것은 이번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정부는 2003년 인권

위에서 불참을, 그 이후에는 계속 기권했다. 정부는 매 번 기권하면서 왜 기권하는지를 설명

했는데, 그 내용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었다.

◇이번엔 왜 찬성하나=찬성으로 선화한 것을 놓고 정부는 “포용정책의 변화는 아니다”며

지나친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동시에 상황 변화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도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이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요인의 변화가 있다”면서 “북한 핵실험 같은 것도 그렇고 미사일 문제도 그렇고 여러 요소들이 판단하는 데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지난 달 9일 북한의 핵실험이 물고온 달라진 상황이 핵심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다.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한반도 상황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뤄진 북한의 핵실험 여파로 안팎에서 대북 강경론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PSI 참여 요구에 대해 정부가 지난 13일 ‘우리의 특수한 상황’을 들어 정식 참여를 유보한 것을 놓고 비판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 감안됐다는 관측도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 9단’ 3金 행보가 심상찮다

DJ, 정계개편론속 활동 활발

YS-JP, 회동 발표했다 연기

현실정치 무대에서 물려났던 김영삼(YS)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김종필(JP) 전 자민련 총재 등 이른바 ‘3김’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1960년대 이후 40년 가까이 한국정치의 주역으로 활동해온 3김은 지난 2004년 김종필 전 총재가 총선 비례대표 1번에서 조차 떨어져 정계은퇴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정치권 전면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내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전체가 새판짜기 논의 등 급속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빠져 들고 북한 핵실험 등 국가안보의 위기상황이 불어닥쳐 정국의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8순 전후의 ‘노정개’ 3인이 다시 한번 현실정치 무대에 모습을 드러내는 듯한 아이러니컬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는 인물은 김대중 전 대통령. 그는 지난달 28일 퇴임 8년 만에 고향인 전남 목포를 방문한 데 이어 지난 4일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동교동 사저에서 전격 회동,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3김 중 연장자인 DJ의 이런 ‘왕성한’ 활동은 필생의 라이벌인 YS와 JP를 같은 무대로 끌어들이는 측면에 역할을 하고 있다. YS와 JP는 17일 시내 모 호텔에서 만찬회동을 갖는다고 밝혔다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자 16일 돌연 회동을 무기연기했다.

두 김씨족은 당초 북핵문제 등 최근 국가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다고 설명했지만 세간에는 노 대통령과 DJ의 회동에 대한 정치적 반격의 의미를 띤 게 아니냐는 인상이 주기에 충분했다.

노 대통령-DJ 회동을 계기로 정계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힘을 얻어갈 조짐을 보이자 영남과 충청권의 맹주였던 두 사람이 바로 반격에 나선 게 아니라는 관측이다.

김종필 전 총재는 16일 알렉산더 베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와 미대사관 정치팀장 배석하에 오찬회동을 했다며 자신의 언론답당적인 변용전 전 의원을 통해 공개, 눈길을 끌었다.

3김족은 이에 대해 정치적 행보가 아니라 국가원로로서의 관심이나 자문 정도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과거 3김이 지역기반을 토대로 행사를 해온 한 국정치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적잖은 과장은 있으리라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전남 ROTC 제15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일시 : 2006년 11월 24일(금) 6:30PM
장소 : 백운동 프라도호텔(3층)

취임회장 : 백 남길(15기)
(합)서전사

이임회장 : 서재의(14기)
광주광역시교육위원

수석부회장 : 이연득(16기)

사무총장 : 김희종(17기)
사무국장 : 남대일(20기)

총무부장 : 조월동(27기)
조직부장 : 이대규(24기)

사업부장 : 한승관(29기)
총보부장 : 정석재(22기)

■식전행사 : 초대가수 ■제1부 : 정기총회 ■제2부 : 이·취임식 ■제3부 : 만찬(어울림 한마당)